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7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 개최

최우수 신안 안창공동체 **우수** 부안 격포공동체 **장려** 서산 중왕공동체



8월 31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과 공동체 활동에 대해 질의 응답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1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2017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갖고 최우수 공동체에 전남 신안의 안창공동체(위원장 오병석), 우수공동체에 전북 부안의 격포공동체(위원장 김재태), 장려공동체에 충남 서산의 중왕공동체(위원장 박현

규)를 각각 선정했다. 올해 전국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안창공동체는 자체 규약을 제정해 낙지 조업 금지 기간 1~2월 추가 확대, 낙지목장 조성사업 추진, 가리맛조개 신규 소득품종 개발, 어장 휴식제 실시 등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체 자체 브랜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오는 11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추진한 각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공동체를 선발·시상함으로써 참여공동체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를 확산 시키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가 오는 11월 8일(수)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제1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공동체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양식어업 등 4개 분야별 경연이 펼쳐진다. 분야별 우수공동체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3,00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드를 개발해 독자적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회원들의 단결된 역량을 보여줘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1,159개소에 대한 등급(선진 61, 자립 240, 모범 301, 협동 515, 참여 42개소)도 결정했다.

한편 올해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는 시도에서 우수공동체로 추천한 공동체 중 현지 확인절차를 거친 5개 공동체를 최종 후보공동체로 선정, 이날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사례 발표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안창공동체 대해서는 육성사업비 지원, 정부포상, 공동체 활동 동영상 제작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활성화 방안 회의

한국수산업회, 상반기 활동보고 및 개선방안 협의



한국수산업회는 8월 11일 컨설턴트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갖고 상반기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수산업회는 지난 8월 11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및 전문분야 컨설턴트를 포함한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컨설턴트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사무관리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활동부진 공동체에 대한 제재 방안 필요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협의했다.

한편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21명은 금년도 상반기 총 639회에 걸쳐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관리어업 SNS로 대국민 홍보 추진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어업 블로그·페이스북 운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어업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정책사업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수산업회에서 자율관리어업 블로그(<http://blog.naver.com/jayulfish>)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jayulfish>)를 구축,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자율관리어업 블로그에는 △금어기, 포획금지 체장,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수산어보>, △제철 수산물 정보 및 레시피 정보를 담은 <제철 바다밥상>,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소식 등을 전하는 <갈매기 편지>, △바다마을과 어업인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바다 이야기> 등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한편 블로그와 페이스북 2개의 콘텐츠를 연동해 홍보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www.jayul.go.kr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다끼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체포체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삭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고창 구시포공동체, 수산물 복합센터 준공



고창 구시포공동체에 수산물 복합센터가 건립돼 7월 26일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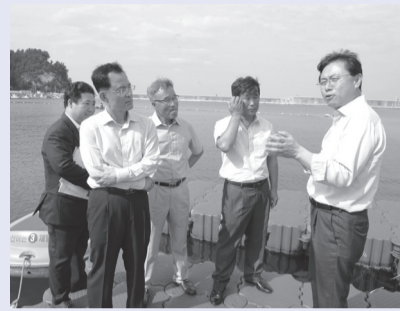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자율관리공동체에 '수산물 복합센터'가 건립돼 7월 26일 개장했다. 총 10억원이 투입된 수산물센터에는 수산물 판매장을 포함해 식당, 민박 등의 시설을 갖췄다. 2003년 결성된 이래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2010년 전국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바 있는 구시포 자율관리공동체

는 해양수산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아 금년 6월 수산물센터를 완공해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 공동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12개 자율관리공동체가 결성돼 약 7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 양양 수산공동체 방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양양 수산항을 방문, 수산공동체 김영환 위원장과 바다요트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어촌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창군 하전공동체, 바지락 종패 생산 워크숍 개최



고창 하전공동체 주관으로 8월 18일 바지락의 안정적인 종패수급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전북 고창군 하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권영주) 주관으로 지난 8월 18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국민체육센터에서 바지락 종패 생산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바지락 종패의 원활한 수급과 어업인들에게 공급되는 종패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산과학원 서해갯벌연구소, (주)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고창군 해양수산과와 공동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바지락 종패 생산 및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을 위해 그동안 실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 형태로 진행됐다. 고창 바지락은 국내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바지락 생산 양식장의 생태 복원능력 약화와 자연적인 치패 발생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종패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축제식양식장을 활용한 종패 발생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바지락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관리 성공사례전수 현장 교육

통영 양지패류양식공동체, 울산 주전공동체 방문



경남 통영 양지패류양식공동체(위원장 송광주) 회원 30여명은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간 울산의 대표적인 공동체인 주전공동체를 방문해 공동체 활동상을 견학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번 교육에서 강원보 주전공동체 위원장은 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방안 등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 교육이 울산 주전공동체에서 열렸다.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2017년 상반기 신규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어선어업 3개 공동체 포함, 12개 공동체 신규 참여

지난해 말 1,159개소였던 공동체 수는 올 상반기 12개 공동체가 신규로 참여해 금년 6월 말 현재 1,171개소로 집계됐다.

금년 상반기(1~6월) 중 신규 참여한 12개 공동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마을어업 6개소, 어선어업 3개소, 양식어업 2개소, 내수면어업 1개소로 집계됐

다. 시도별로는 강원 1, 충남 5, 전남 4, 경남 1, 제주 1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중 신규 참여한 19개 공동체 현황이다.

<p>■ 반암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함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1. 11. / 48명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p>■ 보령어업인박사연합회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송재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4. 19. / 156명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p>■ 세화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강두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6. 1. / 25명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p>■ 진도낙지통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철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1. 23. / 45명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p>■ 고파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기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충남 서산시 팔봉면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4. 19. / 47명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p>■ 군농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서금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전남 보성군 화천면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6. 12. / 70명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p>■ 사천해수어류양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정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경남 사천시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4. 6. / 10명 공동체 유형: 양식어업 	<p>■ 당미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태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충남 태안군 남면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4. 19. / 52명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p>■ 금장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광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성왕로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6. 12. / 104명 공동체 유형: 양식어업
<p>■ 보령댁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송낙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충남 보령시 미산면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4. 19. / 11명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p>■ 창기3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경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4. 19. / 36명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p>■ 전남고흥새우조망영어조합인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금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7. 6. 12. / 17명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의식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검토 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관리어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관리어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단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 어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과 같이 참여공동체 지도자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 지급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선거 등으로 공동체 위원장이 경질될 경우 회계장부나 규약 등의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기존사업의 흐름이 막히고 호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특성상 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 선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북어업기술센터에서는 도비를 확보하여 매년 전국의 우수공동체에 대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백미리공동체와 울산 주전공동체 등을 방문해 좋은 성과와 호응을 거두고 있음에 따라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자율관리어업이 거의 성년에 접어든 만큼 정량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평가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활동이 전혀 없거나 평가점수가 매년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지면 경고나 취소 등 페널티가 있어야 전체 공동체가 건강해 질 수 있다.

넷째,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경북의 경우 전북 치패방류사업 등 자원조성사업이 52



김관규
경북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장

~61%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효과 조사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해안의 경우 전체 압반 10,000여ha 중 6,436ha의 수역에 갯녹음이 발생하였다는 동해수산연구소의 보고에 근거할 때, 먹이 해조량을

감안하지 않고 그것도 먹이 경쟁생물인 성게류도 생산하면서 매년 전복치패를 대량 방류하여 막연히 소득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차체에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전문가 집단에서 마을어장별 해조숲 구성실태에 따른 적정방류량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사업집행에 따른 객관성과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율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공동체와 신규로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책을 강구하여 동기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공동체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어도 10%의 자부담도 충당할 수 없는 공동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내 구룡포수협의 경우 어촌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어촌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거나 선지급하는 사례도 자부담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자율관리 컨설턴트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이 전직에서 자율관리어업을 담당한 이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함에 비추어 업종별 혹은 지역별 갈등이나 현안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전남에 7명과 각 시도별 1~2명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원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관리어업을 통하여 어가소득 증대와 어촌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남 무안에 국내 최대 갯벌낙지 산란장 조성

내동장재창매 3개 어촌계 대상 ... 27ha 규모로 추진



국내 최대 갯벌낙지 산지인 전남 무안에 산란장 27ha가 조성되고 있어 어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서해생명자원센터는 “갯벌낙지 자원 증강을 위해 전남 무안군 탄도만에 낙지 산란장 조성 면적 27ha 가운데 18ha를 조성했다”

고 밝혔다.

전남 무안은 국내 최대 갯벌낙지 산지 중 한 곳으로, 무안 어가의 주 소득원이다. 하지만 갯벌 감소와 남획 및 어장환경 변화로 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FIRA는 작년부터 무안 탄도만 일대 내동장재창매 등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갯벌 낙지의 안정적인 서식 및 번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산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IRA는 올해 국비 총 2억7천5백만 원을 투입해 봄, 초여름, 가을 각 9ha씩 총 27ha의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18ha의 낙지 산란장 조성을 완료했다.

성숙한 암수 낙지를 함께 수용해 어미 낙지를 갯벌에 직접 방류하는 방식으로 산란장을 조성 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효과조사를 병행해 조성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해수부, 성장속도 6개월 빠른 '육종참전복' 개발

유전자 조작 없이 우수한 개체 선별... 3년간 검증실험 거쳐



8월 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직원이 '속(速)성장 육종 참전복'을 공개하고 있다. 속성 성장 육종 참전복은(오른쪽)은 일반적인 양식 참전복보다 성장이 빠르고 중량이 무겁다.

해양수산부는 최신 육종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양식용 참전복보다 성장 속도가 30% 이상 빠른 '속(速)성장 육종 참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양식용 참전복은 100g까지 성장하는 기간이 수정 후 36개월가량 소요됐으나, 이번에 개발된 육종참전복은 30개월이면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수온과 먹이 조건에 따라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국내에서 양식되는 참전복은 한류성 품종으로 성장속도가 다른 품종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속(速)성장 육종참전복'은 유전자 조작 없이 우수한 개체를 선별해 형질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완도 양식장에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검증실험도 거쳤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발된 참전복이 사육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비용도 기존 참전복에 비해 17%인 연간 700억 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해남에 있는 '전복종자보급센터'를 활용해 내년부터 양식 현장에 본격적으로 속성장 육종참전복을 보급할 계획이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해수부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대국민 UCC 공모전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함께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2회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영상(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2회째를 맞은 올해 공모전은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과 연관해 주요 어종의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을 공모받을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6일까지이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

할 수 있다.

참가자는 종류 및 형식에 제한 없이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www.youtube.com)에 게재한 후 공모전 누리집(www.수산자원을부탁해.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11월 22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www.수산자원을부탁해.com)이나 운영사무국(02-3462-7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수산회, 대풍 맞은 제주갈치 소비촉진 행사



한국수산회는 대풍을 맞은 갈치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들과 서울역사에서 특별 행사를 가졌다.

한국수산회는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전국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갈치 풍년 소비촉진 특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스, 롯데슈퍼, GS리테일, 바다마트 등 6개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해 제주산 갈치 150톤과 오징어 37톤을 전국 1,155개 지점에서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한국수산회 쇼핑물 '피쉬세일' 추석맞이 할인행사

한국수산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에서 정성껏 마련한 수산물 선물세트를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이번 추석맞이 할인행사에는 국내산 청정수산물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니 고마운 분들께 수산물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 ▶ 기 간 : 2017. 9. 18 ~ 9. 29 (2주간)
- ▶ 쇼 핑 물 :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www.fishsale.co.kr)
- ▶ 행사내용 : 추석맞이 수산물 최대 30% 할인코너 개설
- ▶ 행사품목 : 굴비, 전복, 멸치, 김, 명절선물세트 등

국회에서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해양수산분야의 국정과제 이행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김태흠(자유한국당),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의 3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있었다.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 바다 되살리기와 양식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공동체 탐방 / 전북 부안 치도 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가무락 주 생산지 ... 가공공장 건립으로 도약 계기 마련

매일 소식지 제작해 회원 간 신뢰다져 ... 위도 조난위령제도 부활



송기철 치도공동체 위원장



바지락 산란 서식장 조성모습



치도공동체 선진지 견학모습



치도공동체에서 매일 발행하는 자체 소식지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여객선으로 50분 정도 타고가면 위도의 관문인 위도항에 도착하는데, 치도는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앞은 광활한 갯벌이 있어 바지락, 가무락 양식의 적지이며, 과거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어업으로 부촌을 이룬 적도 있는 공동체 마을이다.

이 같은 오지의 섬마을이지만 치도공동체는 송기철 위원장(63)을 중심으로 110여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바지락 종패 발생장 조성, 패류어장(바지락, 굴) 휴식년제 도입 등 적극적인 어장관리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자율관리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바지락, 가무락의 종패살포

사업을 통한 자원조성에 적극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선진공동체 육성사업비 7억여원을 지원받아 현재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연내 완공 예정인 수산물 가공공장에는 냉동창고를 비롯, 패류 및 해조류의 세척과 포장설비를 갖추고 있어 위도의 명품 바지락, 가무락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기존 톳 양식지를 김으로 변경해 60여ha에서 20억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부터는 서해안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 이모작형태의 잇바디돌김 시험생산에 나서는데 소득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구성원 간의 단합이 이뤄지기까지에는 전국 어촌마을 최초로 공동체 자체 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송기철 위원장은 밝혔다.

비록 작은 어촌마을이지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소식들을 회원들이 공유할 때 신뢰가 형성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의식이 생긴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지론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혼자서 소식지를 제작, 전 회원은 물론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에게도 배포해 치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송 위원장은 위도 칠산어장에서 희생된 어업인들을 위한 위령제를 20여년만에 복원하는 주역이기도 하다. 1931년 3차례에 걸친 강한 태풍으로 희생된 600여명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칠산어장 조난위령제'를 2015년 5월 치도공동체로 주관으로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추진과 관련, 송 위원장은 바지락 종패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마련과 패류 채취 어업인의 고령화를 감안, 바지락 채취 기계의 개발 보급을 절실히 희망했다.

<위도=최광림 본부장>